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May No.112

NH-Amundi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본부

작성기준일 : 2026년 4월 30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623호]
(2026.05.11~2027.05.10)

 NH-Amundi자산운용

Contents

시장전망

· CIO 칼럼	03
· 국내 주식 시장 전망	04
· 국내 채권 시장 전망	05
· 해외 주식 시장 전망	06
· 해외 채권 시장 전망	07

CIO 칼럼

종전 이후를 바라보는 금융시장

지난 1월 칼럼에서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중국 등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분쟁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 등을 명분으로 선전포고 없이 이란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또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칼럼을 쓰고 있는 4월 27일에도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작전명 Operation Epic Pury에서 보듯 세계 최강 군사력을 앞세워 제공권 장악과 첨단 미사일로 강력한 공습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 또한 제4차 진실의 약속이라는 작전명에서 보듯 2024년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군사적 갈등에 종교와 역사적 의미를 더하며 아라비아만 전역에서 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개전 초기 극심한 변동성에 흔들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개전 후 첫 거래일에 -3~-4% 하락했고 3월 한 달간 미국 S&P500지수가 -5.1% 하락했습니다. 중동지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아시아권은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었습니다. 한국 코스피는 개전 당일 -7.24%, 한달 간 -19% 하락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고, 일본 역시 닛케이 지수 기준 당일 -3.06%, 3월 -13.2%를 기록했습니다.

4월에 들어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가 이어지면서 원유 수입의 상당부분을 중동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환율도 유가와 함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60달러 후반에서 안정되었던 국제 유가는 개전 후 브렌트유 기준 119달러로 상승하며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로 상승했고 원화도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대로 상승하며 유가 상승이 환율 불안을 강화 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8일 미국의 최후통첩을 앞두고 미국-이란의 극적 협상이 타결되며 2주간 휴전이 성사되었으나 이후 지금까지 두 나라는 양보없는 종전 협상과 막판 휴전 연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견봉세 상황이 이어지고 이란과 미국은 물론 이스라엘, 중재국 파키스탄,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협상테이블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종전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적다는 판단과 원유 수출 확대, 폭발적 AI 성장세의 중심에서 S&P500과 나스닥 모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한국, 대만 역시 AI 성장세에 기댄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 중입니다.

종전 이후 아랍지역 인프라 복구, 정유시설과 송유관 건설, 대체 에너지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 역시 미국 기술주 중심의 증시 반등에 동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전쟁으로 파괴된 정유 및 송유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국제 유가 역시 상당기간 고공 행진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과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글로벌 교역량을 하락시켜 전세계가 성장률 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 막대한 전쟁물자를 쏟아 부은 미국은 전쟁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며 발생할 수 있는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달러 약세 가능성 등은 종전 이후에 더욱 중요해질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치적 종전 선언에도 군사행동의 종료까지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종전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금융시장에서 tail risk를 관리하고 고용, 물가, 투자 등 매크로 지표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지금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진희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 총괄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시장전망

4월 KOSPI는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라는 엄중한 환경 속에서도 추가적인 군사 충돌이 부재하다는 점에 안도하며 3월의 극단적 하락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한 반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4월 KOSPI의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 밸류체인'이 주도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4월 '리버레이션 데이' 랠리 당시의 소외감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일부 투자자들의 'FOMO' 심리와 '숏 스퀴즈'가 동시 다발적으로 맞물리며 반등 탄력을 극대화했습니다.

5월 국내 증시는 이른바 'Sell in May'와 같은 급격한 매도 장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횡보 내지는 소폭의 조정을 겪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간의 물리적 충돌은 소강상태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이란 핵 프로그램이라는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일각의 우려처럼 전쟁도, 합의도 없는 불안정한 국면이 장기화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의 장기화가 배럴당 90달러 선의 고유가 기조를 고착화하며 증시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반등이 시차를 두고 근원 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국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의 의미 있는 하락이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가이던스 상향 및 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압축 대응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코스닥 포함 중소형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



기관 유입
촉진

- ▶ 정부주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 조성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연기금 참여 유도



세제 혜택
확대

- ▶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연장
- ▶ BDC 투자 시 세제 혜택 적극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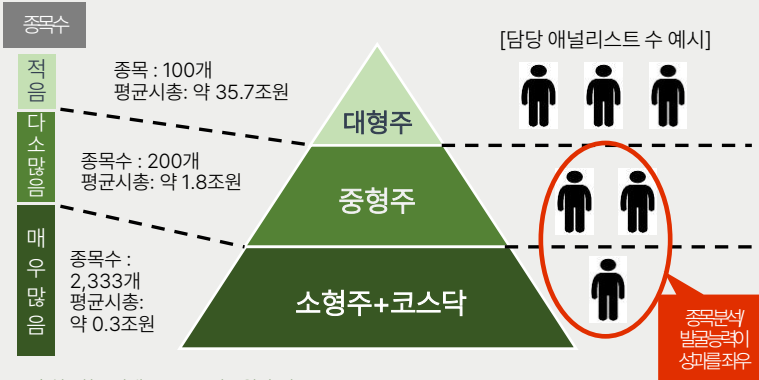


투명성
강화

- ▶ 심사 강화를 통한 신규 상장 및 폐지 신속화
- ▶ 승강제 도입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촉진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투자자의 관심 부족으로 저평가된 유망 종목이 다수 존재하는 중소형주 시장



3. 다수의 중소형주 분석 인력 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리서치 조직을 활용하여 유망 종목 발굴

국내주식 운용역 & 애널리스트

20 명

기업 담당자 면담 횟수

연 1,100 건

중소형주 분석 인력

6 명

일반 기업 리서치 보고서 작성

연 300 건 이상

* 2025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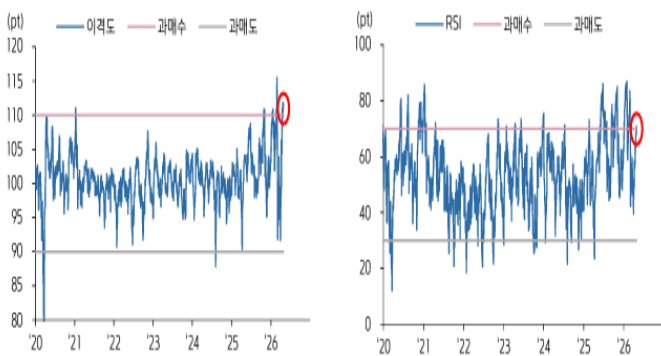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1	C	C-P1	C-P2
선취수수료	1%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9%	1.5%	0.8%	0.78%
운용보수	0.54%			
기타보수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OSPI 단기 과열 국면 진입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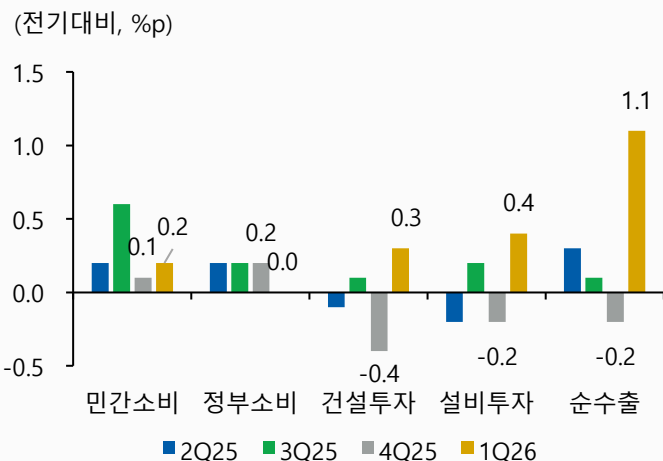
시장 전망

4월 채권시장은 종전 기대, WGBI 관련 자금 유입 기대감 등으로 월초 이후 금리 낙폭을 확대했으나, 미-이란 2차 협상 결렬 속 한 1Q GDP 서프라이즈에 따른 한은 인상 경계감 확대, 유가 재반등 영향 등으로 상반기 월 금리 낙폭을 상당 부분 되돌려 마감했습니다. (4/28일 기준 국고 5Y 전월 말 대비 -5.5bp)

5월 채권시장은 美-이란 협상 경과에 따른 유가 흐름, 한-미 통화정책 스탠스 등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WGBI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며 금리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월 금통위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Q 성장률 호조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 전후로 상향 조정(기준: 2.0%)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의 경제 파급효과, 유가와 환율 상승이 기초적 물가 상승으로 확산될지 여부 등을 좀 더 지켜볼 필요로 '전략적 인내' 스탠스를 예상합니다.

최근 시장참가자들의 우려처럼 1Q 성장 호조가 올해와 내년 3~4차례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26년 뿐 아니라 내년 성장, 특히 소비 회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OECD가 올해-내년 잠재성장률을 1.7%-1.6%로 제시한 가운데, 반도체 사이클 약화 시, 내년 이후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5월 금통위의 신중한 기조, 한은의 하반기 및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 등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과도한 인상 경계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 실질 GDP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



*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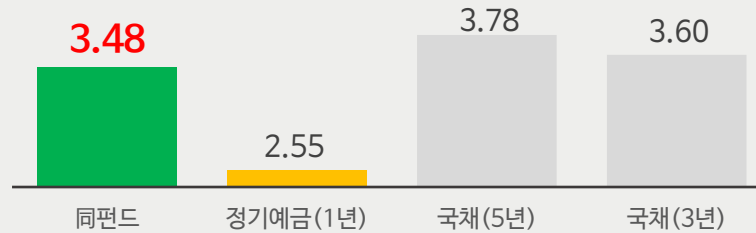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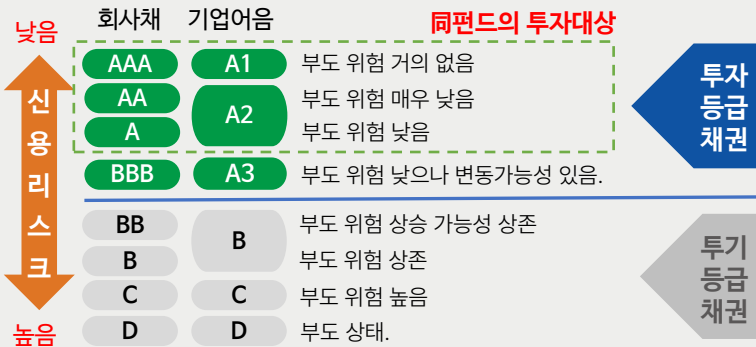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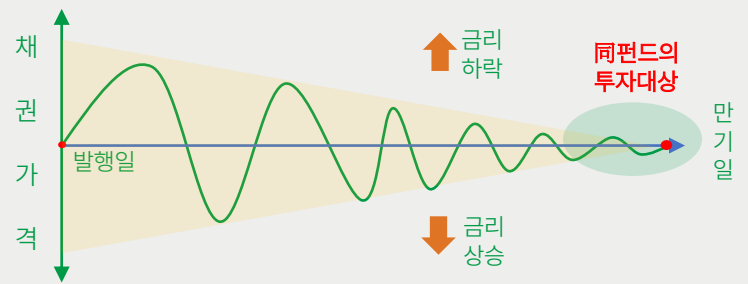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6년 4월 30일 기준)

-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2	C	C-P1	C-P2
선취수수료	0.3%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05%	0.30%	0.19%	0.18%
운용보수	0.075%			
기타보수	수탁 0.01%, 사무관리 0.01%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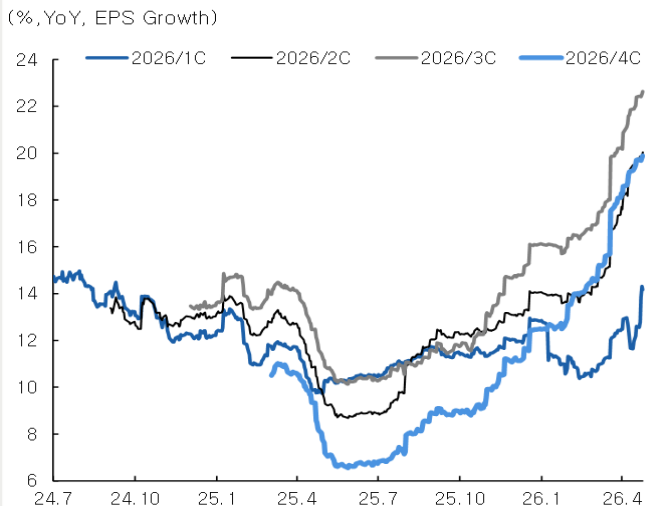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4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부에 연연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을 기점으로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파키스탄이 중재한 2주 휴전안에 이란 내 온건파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며 유가가 급락하자 시장은 급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혼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와 계속 지연되는 통행 재개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하였으나, 투자자들은 양호한 경제 지표,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과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결국 종전에 합의하리라는 기대, AI투자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계의 초호황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990년 이후 최초로 18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종전을 둘러싼 협상은 복잡하고 모호하며, 국제 유가는 이를 반영하며 아직도 9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투자를 중심으로 한 양호한 기업 펀더멘탈과 실적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단기에 집중되며 다시 과매수권으로 시장이 과열되었기에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종전과 더불어 유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는 경우 연말까지의 상승세도 기대됩니다. 기업 실적, 단기조정 가능성, 연준의 금리 전망 등에 유의하며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S&P500 EPS 성장률 추정치



* 출처: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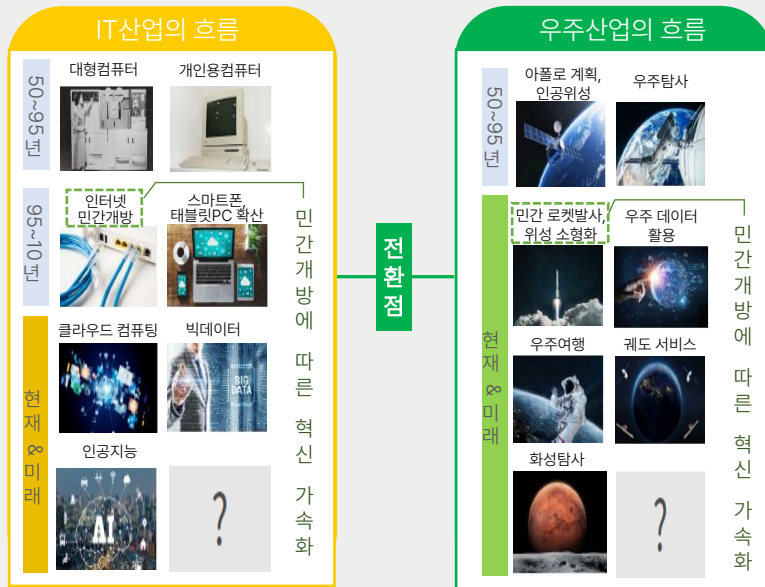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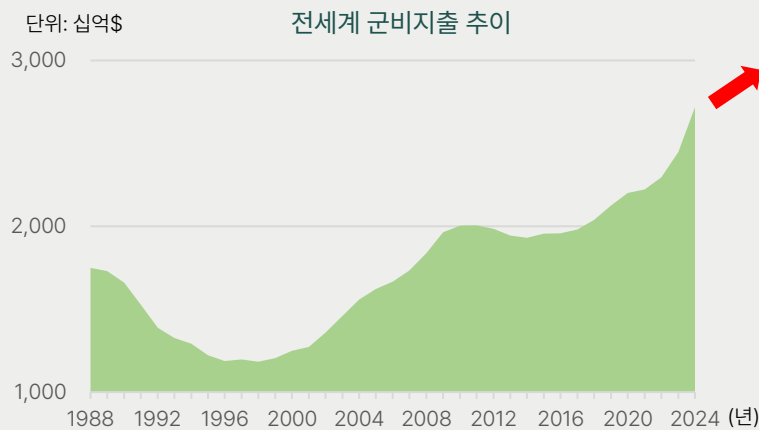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1.0%이내	0.5%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70%	0.35%	0.85%	0.80%
운용보수	0.80%			
기타보수	수탁 0.06%, 사무관리 0.02%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4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2월 28일에 발발한 미/이스라엘 - 이란 전쟁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며 자산별로 다른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쟁 후 WTI 유가는 \$120 까지 상승하였으나 -15% 하락한 \$95 수준까지 하락하였고, 미국과 유럽채권의 스프레드는 종전 수준까지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금리는 휴전 때 잠시 하락하였으나 협상 지연에 따라 다시 상승하며 전쟁 피크 수준까지 상승하며 3월말 대비 약보합 마감하였습니다. (미 10년물 +2bp, 독 10년물 +1bp, 미 IG -9bp, 유럽 IG -16bp)

5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이란 종전 협상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많은 부분에 이견을 좁혔으나, 우라늄 보관 및 이전에 대한 부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세 부과 등 큰 부분에 대한 협상이 남았으며, 이란의 강경파가 이란 협상을 주도하면서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조심스럽게 모니터링 하면서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현재 매우 높은 상황이며, 채권 투자에는 좋은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이 지속될 경우 지금보다 최대 +20bp 정도 확대 가능성이 높으나, 협상이 종전으로 끝난다면 -20~30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회사채 펀드입니다. 듀레이션이 길며, 투자등급 회사채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위험도가 높지 않아 휴전 시, 가장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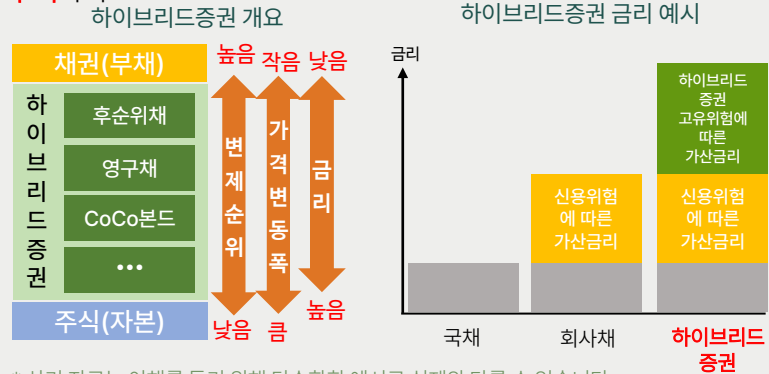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1 2 3 **4** 5 6
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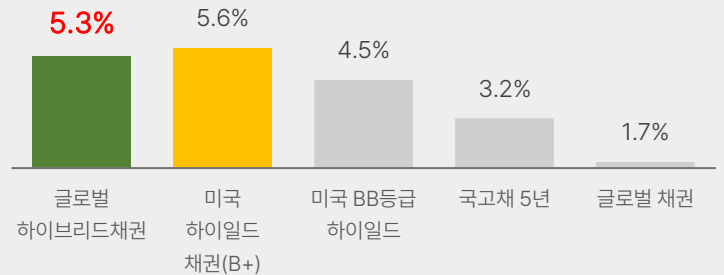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해외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15% 달러/원 -2.28%) 수치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p>프랑스 전력공사</p> <p>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 신용등급 : BBB+(S&P)</p>	<p>도이치 뱅크</p> <p>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 신용등급 : A(S&P)</p>
--	---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0.8%이내	0.4%이내	-	-
할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50%	0.25%	0.45%	0.42%
운용보수	0.40%			
기타보수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 또는 최신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본 자료 제공 이후 또는 이전에 발생한 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표시한 제반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자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 받은 경우 절대로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결정을 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규약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참고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가 지금 현재 시점의 시장상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귀사의 내부 참고용으로만 제작한 것이므로, 귀사는 본 자료를 투자자에게 배포하거나, 본 자료의 내용을 발췌·인용하거나 본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상품 취득의 권유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표시 자산투자 시)
- 재간접형 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 보수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수수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에 기재된 운용현황, 시장전망 등은 참고자료로서 작성된 것으로서 당사는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